

팬심과 거리 먼 KIA, '성적'과 '미래' 모두 불안하다

조계현 단장 2년 재계약 ... 팬들 인터넷 게시판·SNS에 불만 표출
 잇따른 팀 내 잡음·2년 연속 PO 실패에도 재신임 ... 논란 클 듯

'방향'이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1일 조계현 단장과 2년 재계약을 발표했다. 선수 출신 첫 단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앞선 3년의 입기 동안 팀 안팎에서 잡음이 이어졌고,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도 2년 연속 '가을잔치'에 실패하는 등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KIA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불만의 글을 쏟아냈다. 최형우의 골든글러브 수상 소식을 알리는 구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조계현 단장의 재계약을 성토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KIA는 이런 팬들의 여론을 알면서도 앞선 3년의 책임을 묻는 대신 조 단장에게 2년의 시간을 더해줬다. 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릴 '2년'은 윌리엄스 감독의 남은 임기이기도 하다.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2년을 앞두고 있지만, KIA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KIA는 올 시즌 역대급 이력의 외국인 감독을 영입했다. 앞선 과오들로 입지가 좁아졌던 조계현 단

장은 새로운 사령탑으로 윌리엄스 감독을 붙잡으면서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KIA는 특급 외국인 감독 영입과 공격적인 트레이드에도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내년 시즌 역시 핑크빛은 아니다. 올 시즌에도 FA 관망자가 된 KIA의 내부에 물음표가 많다. 투타의 핵심 양현종과 최형우의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고, 외국인 선수 한 자리도 공석이다. 물론 이 세 자리를 완벽하게 채운다고 해도 막강 전력은 아니다. 몇 년간 약점으로 꼽혔던 야수진의 세대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확실한 선수층이 구축되지는 않았다. 지난 시즌 KBO를 놀라게 했던 '박하전문'도 올 시즌 부상과 트레이드에 신음했다. 냉정하게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인 영입·육성으로 팀을 다져야 하는 시기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성적을 포기할 수도 없다. FA로 전력을 더 하지 못하면 자연히 시선이 트레이드로 쏠릴 수밖에 없다. 올 시즌에도 KIA는 공격적으로 트레이드에 나

섰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괜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과정도 아쉬웠다. 또 급한 불을 끄느라 내야에 자원이 몰리면서, 마운드와 외야가 새로운 고민 지점이 됐다. 특히 올 시즌 실패 원인으로 우선 꼽히는 부분이 마운드의 만능 '투수'에 고민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레이드 시장에서 다시 KIA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이 중요한 KIA, 시간이 필요한 특급 유망 주자의 이름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고 있다. 마음 급할 것 없는 상대의 카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마음 급한 KIA를 상대로 '미래'에 무게를 둔 구단들의 러브콜도 이어질 전망이다. KIA는 2017년 특급 기대주였던 좌완 이승호를 내주고, 마무리로 김세현을 영입하는 '깜짝 트레이드'를 단행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우승'이라는 확실한 '방향'이 있었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다. 5강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 KIA는 성적과 미래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특히 윌리엄스 감독에게 육성까지 맡겼고, 이범호 퓨처스 총괄코치라는 파격 인사까지 단행한 만큼 당장 '5강'에 급급한 임시 방편적 트레이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팬들이 원하는 것도 '깜짝 성적'으로 만든 모래성 같은 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정으로 포스트시즌에서 경쟁하는 팀이다.



KIA 타이거즈 조계현 단장.

KIA는 2009년과 2017년에도 '깜짝 우승'을 했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뒷걸음치며 자존심을 구겼다. KIA는 2018년 전임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왕조재건'의 기틀을 다지는 것 같았다. 구단 비전을 만드는 등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확실한 투자로 우승을 이뤘던 허영택 단장이 첫 전임 대표이사 역할을 맡았지만, 2019시즌 개막 1

주일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홍보 전문가' 출신의 이화원 대표 이사가 새로 KIA의 수장이 됐지만, 조계현 단장을 중심으로 연달아 잡음이 새어 나왔다. 성적도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구단은 '재신임'을 선택했다. 앞선 3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을 위해서는 구단의 '방향' 설정이 우선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지명타자 첫 골든글러브
 NC 양의지 99.4%...득표율 1위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함께 KBO 2020시즌이 마무리됐다. 올 시즌을 평정한 NC의 포수 양의지가 '최다 득표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미를 장식했고, KIA의 '타격왕' 최형우는 개인 6번째이자 지명타자로는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지난 11일 끝난 2020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주인공은 이번에도 양의지였다. NC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며 한국시리즈 MVP에 등극했던 양의지는 시즌 마지막 공식 시상식에서도 포수 부문 '황금장갑'을 들어 올렸다. 개인 통산 6번째 수상에 성공한 양의지는 이만수 전 SK 감독, 강민호(삼성·이상 5회)를 제치고 이 부문 최다 수상 단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수 부문 최다 수상 기록은 7회를 기록한 김동수 LG 코치가 가지고 있다. 양의지는 '득표율'에서는 역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수상 여부보다는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 이날, 양의지는 총 유효표 342표 중 340표를 씹쓸이 하면서 99.4%의 득표율을 찍었다. 이와 함께 양의지는 2002년 마해영의 득표율 99.3%(272표 중 270표를 획득)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며, '당대 최고의 포수'의 위엄을 과시했다. 올해 0.354의 타율을 찍으며 '최고의 타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최형우도 다시 한번 시상대에 올랐다. 최형우는 168표를 얻어 113표를 획득한 NC 나성범을 따돌리고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가 됐다. 앞서 외야수로 5개의 골든글러브를 쟁긴 최형우는 지명타자로 변신한 올 시즌 포지션을 바꿔 개인 6번째 수상을 이뤘다. 키움 김하성(유격수)과 이정후(외야수)는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김하성은 277명의 지지를 받아 23표에 그친 LG 오지환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3년 연속 유격수 부문 주인공이 됐다. 이정후도 격전지인 외야에서 KT 로하스(309표), LG 김현수(221)에 이어 202표를 얻어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김하성은 김재박(4회), 강정호에 이어 세 번째 유격수 부문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을 작성했다. 이정후는 장효조, 박재홍, 이병규에 이어 역대 외야수 중 4번째로 '데뷔 4년 차 골든글러브 3회 수상'을 이뤘다. KT의 15년 차 3루수 황재균과 3년 차 1루수 강백호는 나란히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는 다승(20승)과 승률(0.909) '2관왕'인 두산 일칸타라의 몫이 됐다. 2루 주인공은 NC 박민우가 됐다. 수상자들은 골든글러브와 함께 5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 구매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NC 박석민과 나성범은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KBO 상별 위원회가 선정하는 '패어플레이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자네, 지금 문 앞에서 뭐하나? 중국 하얼빈 팀의 귀 코치가 지난 12일 윈난성 톈충시에서 열린 중국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경기에서 자무쓰 팀 골리 앞에서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푸스카스상 '최종 후보 3인' 올랐다

번리전 73m 원더골 수상 유력 ... FIFA, 17일 시상식
 '올해의 선수'에는 호날두·메시·레반도프스키 3파전

지난 시즌 번리전에서 '원더골'을 터트린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최고의 득점'을 뽑는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다. FIFA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2020'의 부문별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치러진다. 손흥민은 2019-2020 시즌 '최고의 득점'을

는 '더 푸스카스 어워드' 최종 후보 3명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에서 혼자서 73m 질주 하면서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리고 페널티지역까지 뛰어 들어가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드는 '원더골'을 선보였다. 당시 득점은 지난해 EPL '12월의 골'을 시작으로 영국 BBC의 '올해의 골', 영국 스포츠매체 디

에슬레틱의 '올해의 골'에 이어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2019-2020시즌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발표된 FIFA의 '더 푸스카스 어워드' 후보 11명에 포함됐던 손흥민은 이날 히오르한 데 아라스카에타(플라멩구),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와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다. FI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1991년 제정된 'FIFA 올해의 선수'는 2010년 프랑스풋볼이 뽑는 발롱도르와 통합됐다 2016

년부터 다시 따로 시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호날두와 메시와 5차례씩 이상을 나눠 가졌다. 분리 이후 2016-2017년에는 호날두가 연속으로 수상했다가 2018년 루카 모드리치(코로아티아-레알 마드리드)가 받으면서 '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에 잠시 심표를 닦았다. 하지만 지난해 메시가 4년 만에 통산 6번째(2009-2010-2011-2012-2015-2019년) 수상자로 뽑히면서 1년 만에 '메날두' 시대의 재림을 알렸다. 올해는 2019-2020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UEFA 챔피언스리그,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을 통틀어 55골을 폭발하며 뮌헨의 트레블 달성에 힘을 쏟은 레반도프스키의 수상이 유력하다. 한편 '올해의 여자 선수' 11명의 후보에 포함됐던 '지메시' 지소연(첼시 위민)은 최종 후보 3인 명단에 빠졌다. /연합뉴스